

# Those who aim eternal life will achieve it

The life which is led by consciousness weakens the power of God and strengthens the power of Satan.

The Satan which is 6000 years old is in humanity.

Consciousness of 'I' is Satan that has killed your ancestors for 6000 years, it still works in you. People do not know this fact. However, the Bible records "Throw away I." Christianity does not know that 'I' is Satan, the forbidden fruit, and sin among sins. We call a blind person who does not know. Because humanity does not know that 'I' is Satan, the forbidden fruit, sin among sins, and where sin exists, they commit sins everyday like drinking water they pretend not to commit sins. So they are fools.

Jeondogwan religion told that sin is in blood. That word is right, but it did not say exactly. It advanced a bit better than Christianity. In fact, consciousness of 'I' is sin. Therefore, the Bible writes, "Act in God." That is, it means that humanity acts in Satan, acting in Satan means that Satan becomes consciousness of 'I', humanity follows as consciousness of 'I' leads. So God was so stuffy and told humanity to act in God. "Act in God." means that you are acting in Satan. If wise persons read

the word in the Bible, it is normal to think that humanity act in Satan.

The Savior distinguishes from heresy and truth and teaches humanity

This man was born at 4 in the morning on the day of the star, 28. As This man was born as the morning star, He was named the bright morning star. Because God saw in advance that This man would be named Bright Star, he predicted it in the Bible. As This man was supposed to save all humanity, His name cannot but exist in the Bible. As the Savior is only one in the universe, His name must be written in the Bible. The words of the Bible are those of God, but all the words of the Bible are not those of God. The only words that have mate are those of God according to Isaiah 34:16. If one lacks her mate, it is not the word of God. If one thinks that all the words of the Bible are those of God, he/she is ignorant, and then he/she did not read the Bible correctly.

The Bible writes, 26. "To him who overcomes and does my will to the end, I will give authority over the nations—

27. 'He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he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 28. I will



Victor is pouring out the Dew Sprit for salvation of mankind

also give him the morning star" in Revelation 2. It says that God will give the Victor the morning star. Also the Bible records that the Victor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The iron scepter of This man is a spiritual scepter, the words of This man themselves are scepters. As the words from This man becomes scepters, This man's words tells heresy from truth to you. If a tree bears the fruit of death, it is a tree of spirit of death, a tree of Satan. Therefore, if people believe in Jesus, all of them die. So Jesus is a tree of Satan. Jesus told,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I think there are some correct words in Jesus' ones.

All actions as I order are all sins

There are not Christians who do not know that there are the words, "Throw away 'I' all the time." As 'I' is a sinner, the Bible writes to throw away 'I'. According to James 1:15,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Desire itself is sin, but it does not attempt sin, I attempt sin. So the branch of consciousness of 'I' is desire, 'I' is sin,

and the wages of sin is the slave of Satan according to Romans 6: 23. Desire is Satan, consciousness of 'I' is Satan. As the words of the Bible are spiritual words and Adam and Eve died after eating the forbidden fruit. So the forbidden fruit is a killing fruit. When one interprets the Bible, he/she should do like that. If they think blindly that the forbidden fruit is peach or any other kinds of fruit, it is not a biblical interpretation. As the words of the Bible are spiritual, we should interpret them spiritually. Because the forbidden fruit is spirit, it is a killing spirit. As it is a killing spirit, it is Satan. That is the answer. As the followers of the Victory Altar know definitely what sin is, what the forbidden fruit is, they should not commit sin. All actions that are done as I(my ego) want are sins. Although one offers 100 packs of rice to an orphanage, it is committing sin. If I act, it is a sin. Because Christianity does not know the fact, they commit sin a lot and die.

On the judgment day, only if one has an accomplishment for God, he/she will not go to hell

Where persons commit a lot of sins is a false religion. Today, as This man knows about religion

clearly, He wails bitterly. So when This man went to the Secret Chamber, He wailed bitterly several times. If you want to be God, you should trample yourself. If you live for yourself, you can not become God and surely die someday. If one commits sin, he/she surely dies.

This man said in the early of the Victory Altar that one goes to heaven by oneself, one goes to hell by oneself. Nobody pushes. Each person goes his way. Some persons aim to hell. Those who go toward eternal life will achieve immortality someday. To achieve immortality, one tries to accomplish it by offering all of one's possessions. If one aims eternal life, he/she is supposed to act like that. Because one is not convinced of immortality, he/she quails, does not donate contribution. Then he/she goes to hell directly. The Savior will ask on the judgment day, "You came here to achieve eternal life. What did you do for God? If you did not do anything, go to hell." Sinners will not be pushed but be thrown into a burning hell by the Savior. According to Buddhist scriptures, Cho of heaven recorded the sins of all humanity and will judge them on the judgment day.\*

번역: 김숙영 승사

##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만철 선생 탈북기

내가 북한을 떠나는 지 벌써 30년이다 되어간다. 1987년 1월 15일 새벽, 철쭉 같은 어둠을 뚫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식구까지 10식구를 데리고 배로 탈출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내가 말한 '따뜻한 남쪽나라'는 남한이 아니었다. 저 멀리 열대지방의 인도네시아 인근 무인도였다.

하여튼 목숨을 걸고 김일성 독재국가를 탈출하여 어찌어찌하다 보니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동포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배부르게 먹으며 돈도 많이 벌여보았다. 교회도 다녔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학대학원도 다녔다. 그러다가 자본주의 사장에 밝지 못하다보니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와 장로들에게 사기도 여러 번 당하였다.

내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된 것은 뭐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알고 믿어져야 하는 내 성격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신학대학원을 1년 쯤 다녔을 때에 "너희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6)"라는 구절을 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지존자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아니냐? 어찌 예수만 독생자?"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애매모호한 답을 하여,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 후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 너무너무 이치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신학대학원을 중도에 그만 두었다.

그 후 승리제단에 입문하여 '하늘의

사람' 조희성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졌던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 내가 탈북한 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고 한다. 그 동안 여러 매스컴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면 땅을 사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면서 제안을 해왔다. 최근까지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추후도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말 김상욱 회장이 승리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내면 어떻게 살고 하시기에 고품이 생각해보니 승리제단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고, 주님과 제단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 승리제단의 발전과 구원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니 독자님들이 잘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막내동생 동철이 이야기

나는 북한에서 의사였다. 그것도 북한에서 평양의대 다음 가는 청진리의대 교수(북한에서는 '교수'라는 말이 없고 교원이라고 한다)였다. 1987년에 내가 왔는데 내가 탈북하려

##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 제1화 총살당한 막내 동생 동철이



고 마음먹은 70년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 물론 배급제이므로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지만 배급이 끊어지지 않는 편이었다. (편집자 주: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기 시작한 것은 공산국가가 몰락 후 90년대 북한에 흉년과 수재(水災)가 들면서부터였다. 그때 배급조차도 제대로 안주니까 생 사람이 굶어서 죽는 비참한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났다. 오죽했으면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파먹고 다 사람이 죽었겠는가.)

더욱이 난 의사니까 배불리 먹지는 못했어도 굶지는 않았다. 농촌에 가서 치료 잘해주고 약 주면 농민들은 꼭 신세를 갚았다. 순박한 농민들은 감사함의 표시로 나를 적에 언제든지 식량을 조금 갖다 주었다.

난 성분도 좋은 편이었다. 부친께서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항일 공로가 인정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해서 항일운동한 사람들은 성분을 좋게 쳐주었다. 아내는 지주의 딸이라 성분은 좋지 않았지만 내가 북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아마 내 동생이 총살당한 당하지 않았더라면 난 의사로서, 대학교수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에겐 동철이라는 이름의 막내 동생이 하나 있다. 동생은 화가로 제법 소질이 있어서 북한의 명문대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했다. 동료 화가들은 동생을 고구려 시대 유명한 화가 술겨 못지않다고 평가했다. 술겨는 소나무 그림을 그려놓으니 새가 진짜 나무인 줄

착각하고 날아와서 부딪쳐서 떨어졌다. 내 동생은 장애가 촉망되는 화가였던 고로 대학 졸업 후 그림 그리기는 '미술가 동맹'에 근무하면서 30살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작품 하나 내겠다고 그림에 쪽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서양 미술을 해보겠다고 러시아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동생이 러시아에 유학을 가보니까 북한에서 들었던 얘기와 완전히 판관인 거에 김일성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일성은 북한이 사회주의 천국이며 지상낙원이라고 떠만 나면 선전을 했었다. 나도 러시아에 가봤지만 동생도 러시아에 가보니 김일성이 사람들을 철장 없이 가둬놓고 손 거짓말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종주국임에도 북한보다 훨씬 자유가 있었고, 굶주리지도 않았으며, 돈만 있으면 돼지 순대까지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니 속에서 열물이 난 것이다. 그래서 동생은 같이 유학을 간 동료들 또는 러시아 현지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불평하고 비판을 드러내놓고 해 버렸던 것이다. 러시아어도 유창하게 잘 하니 아는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고 다닌 것이다.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소환하여 한 달 만에 총살해버렸다.

나중에 내 동생이 어떤 죄목으로 총

살당했는지 보위부에 근무하는 김봉선에게 물어봐서 알게 되었다. 김봉선은 나하고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것은 모친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치료를 잘 해 주어 살게 되자 그 이후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내 동생이 김일성 모독죄, 남조선 방성 청취죄, 혁명당 비난죄 등에 걸려 총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김일성 모독죄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릴 때 김일성의 취사장(집)에 변소간(엉덩이)을 대고 그렸다는 것이고, 혁명당 비난죄는 외국에 나가서 김일성의 정치활동 및 북한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난 그 자료를 보고 얼마나 열물이 나는지 한참 동안 분을 못 식었다. 너무나 큰 그림이라 벽에다 대놓고 그리기 어려워서 놓쳐놓고 그림 때 위대한 수령님의 취사장에다가 변소간을 대고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북한놈들은 별구실을 잘 갖다 붙여서 어떤 사람 죽이는 데는 일등이다.

만일 내가 동생이 유학 가는 것을 알았다면 외국 나가서 주의할 사항을 알려 주었을 텐데 마침 내가 동독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동생이 유학을 가서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게 지금도 얼마나 한이 되는 줄 모르겠다. 만약 만났다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조용히 머리 숙이고 말 조심하고 지내라고 할 요량이었는데.... 동생은 어릴 때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자라 지금도 그 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찡하게 미어진다.

### 편집자 주

일가족 11식구가 탈북하여 전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만철 선생의 탈북기가 승리신문에 매회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